

축복이 시작되는 거룩한 원리

본문: 창세기 27:1-14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QUoSqF_LVDk?si=QS2yaULjtgIXLdem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내 힘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축복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룩한 원리를 놓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맛과 고집대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이에 불안해진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장과 속임수까지 동원하여 억지로 축복을 훔치려고 안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억지로 복을 쟁취하려 했던 이들의 끝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하는 외로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고 단숨에 왕관을 차지할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원수를 갚고 쟁취하기를 포기합니다. 왕의 자리가 내가 피를 묻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는 거룩한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역노력의 법칙'을 아십니까? 잠이나 물에 뜨는 것은 억지로 애쓸수록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온몸에 힘을 완전히 빼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축복도 이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억지로 쟁취하려는 인간적인 잔꾀를 이제 멈추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억지로 쥐어짜는 내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복이 우리 인생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관찰]

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 죽기 전에 무엇을 하겠다고 말합니까? (창 27:4)
2.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에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합니까? (창 27:11-12)

[삶의 적용]

3. 나는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이삭과 야곱처럼 내 고집이나 세상의 알뜰한 편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습니까?
4. 내 삶에서 억지로 쥐어짜려는 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할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오늘의 기도]

내 잔꾀와 힘을 온전히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잠잠히 머물러, 하늘의 복이 내 삶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